



알프스 생베르나르 산맥을 넘어가는 나폴레옹 : 나폴레옹의 열렬한 찬미자였던 스페인의 왕 찰스 4세가 다비드에 이 초상화를 그리도록 하였다.



1804년에 공포되어, 1807년 이후로 나폴레옹 법전으로 알려지고 있는 프랑스 민법전이다.



나폴레옹의 대관식. 나폴레옹이 월계수관을 쓰고 조세핀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는 장면을 그린 다비드의 작품이다.

나폴레옹은 의료사고로 사망했다(?)

글_ 함혜리 서울신문 파리특파원 lotus@seoul.co.kr

불 세출의 영웅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769~1821)의 사망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법의학자들과 역사가들 사이에서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나폴레옹의 사인과 관련, 최근 새로운 학설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암이나 독극물이 아니라 의사들의 지나친 치료 의욕이 나폴레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주장이다.

한때 유럽을 정복하고 프랑스에 영광을 안겼던 황제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쟁에서 패한 뒤 1821년 52세의 나이로 유배지인 남대서양의 세인트헬레나 섬에서 사망했다. 지금까지 부검에 의한 나폴레옹의 사망원인은 위암으로 알려져 있다. 나폴레옹은 평소 고질적인 위염에 시달려왔으며, 나폴레옹의 아버지도 위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이같은 이론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일부 프랑스 역사가들은 나폴레옹이 독극물에 의해 사망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음모론을 적용하고 있는 이들은 나폴레옹이 그의 프랑스 복귀를 반대하는 프랑스 왕정복고주의자들의 사주를 받은 샤를 드 몽퐁 백작과 영국이 공모한 독극물 투약으로 서서히 죽어갔다는 설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2001년 나폴레옹 사후에 채취한 머리카락에 대한 화학분석 결과 다량의 비소성분이 검출됐다는 점을 이에 대한 과학적 증거로 들었다.

몸속 포티슘 급격히 빠져나가 혈류장애 유발

그러나 최근 발간된 영국 과학잡지 '뉴 사이언티스트'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사망설들은 완전한 오류라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의학연구소의 법의학 생리학자 스티브 카치 박사는 이 잡지를 통해 "나폴레옹은 지나치게 충실한 의사들의 의료적 실



아우스터리츠 (체코 공화국) 전투, 1805년 12월 2일 일어났으며 일명 황제의 전투라고도 알려져 있다. 이 전투로 인해 연합군은 휴전을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된다.

수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카치 박사는 "의사들이 나폴레옹의 더부룩한 배 속과 장 경련을 다스리기 위해 매일 관장제를 줬다"며 "그들은 엄청나게 큰 더러운 주사기 모양의 관장기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는 구토를 유발하는 안티모니 포타슘 타탈산염이라는 화학약품과 함께 쓰여 나폴레옹은 위험할 정도로 포타슘 부족에 시달렸으리라는 설명이다. 카치 박사는 나폴레옹이 이 때문에 심장 상태가 치명적으로 악화돼 불규칙한 심장박동으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가 방해를 받는 증상(Torsades de Pointes)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은 마지막으로 600mg에 이르는 고용량의 하제와 염화수은을 투약했으며, 이는 나폴레옹의 포타슘 수준을 급강하시키는 작용을 했다는 주장이다. 정상적인 분량의 5배가 넘는 이 처방을 받고 나폴레옹은 이틀 후에 사망했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의 몸에서 검출된 비소는 흡연이나 석탄 연기 등 여타의 환경요인에 의한 것이며 비소 때문에 심장 상태 악화에 더 취약해 졌지만, 비소중독만으로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카치 박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새롭게 드러난 나폴레옹의 사망원인이 황제의 지위와는 걸맞지 않지만, 칼럼 부족으로 인한 혈류장애를 최근의 임상에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위암 사인설, 비소 사망설 등 논란 여전

카치 박사의 주장에 대해 암 사인설의 지지자인 코네티컷의 의사 필 코르소 박사는 '억지주장'이라며 단언코 부인했다. 코르소 박사는 "나폴레옹이 분명 병을 앓고 있었고, 치료법과는 관계없이 종양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비소 사망설에 대한 의혹은 2002년 10월 프랑스의 과학전문

지 '시앙스 에 비(과학과 생활)'에서 처음 제기됐었다. 이 잡지는 나폴레옹이 1821년 망명하기 전인 1805년과 1814년 각각 채취된 머리카락의 비소검출량 비교 결과를 공개하며 모든 머리카락 표본이 최대 허용치 3ppm을 훨씬 초과하는 15~100ppm에 이르는 다량의 비소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19세기 일반적인 사람들의 머리카락에는 비소함량이 매우 높았다고 전했다.

나폴레옹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천재이며, 책략에 뛰어난 영웅이었다. 잇따른 전쟁을 통해 전세계에 용맹을 떨쳤으나, 워털루 전쟁에서 패하여 영국에 항복하고 말았다. 그 후 대서양의 세인트헬레나 섬에 유배되었다가 1821년 5월 5일 숨을 거두었다. 나폴레옹이 죽은지 19년 후인 1840년 12월 15일 루이 필립왕은 나폴레옹의 유해를 파리로 송환시켰다. 그의 유해는 앵발리드 군인병원 지하의 중앙에 있는 돔 교회당으로 이장됐다.

나폴레옹의 유해는 일곱개의 관 속에 넣어졌는데 첫번째 관은 주석, 두 번째는 마호가니,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납, 다섯 번째는 흑단, 여섯 번째는 떡갈나무로 만들어졌다. 러시아에서 운반되어 만들어진 일곱 번째 관은 대리석 관이며 녹색의 화장암 위에 얹혀있다. 이 대좌 밑 포석에는 그가 이끈 싸움터의 이름과 행적 등이 돌아가면서 새겨져 있고, 유해 주위에는 그의 형제들과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장군들의 묘가 둘러싸고 있다. ㉮



글쓴이는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프랑스 파리 제2대학 프랑스 언론정보 연구소(FP)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